

2009년 23호

밝게 열린 아이들 세상

in a world



계명원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 설립 목적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계명원은 부모잃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51년 설립되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도시화, 산업화의 문제에 따라 파생된 가정파괴와 재해 등의 요인으로 발생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단순한 수용보호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함께 따뜻한 사랑안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르게

원 훈

무엇이든지 깨끗이

열심히

■ 연혁

- 1951. 11. 20. 재단법인 계명원설립 (故 양계석 원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7번지
- 1957. 08. 23. 재단법인 인가(보건사회부)
- 1977. 01. 28.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 1989. 07. 30. 前 양계석 원장 별세
- 1989. 08. 10. 시설 대표자 변경 (現 양성수 원장)
- 1989. 08. 23. 대표이사 임순례
- 1996. 10. 21. 시설이전(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 1997. 02. 28. 아동복지시설 인가(이전 : 강화군수)
- 2001. 10. 31. 전국 아동복지시설 최우수시설 선정
- 2004. 02. 23. 아동전용시설 개원(원장 : 양성수)
- 2004. 10. 31. 전국아동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
- 2006. 12. 15. 대표이사 변경(원장 : 양성수)
- 2007. 04. 05. 前 임순례 대표이사 별세
- 2007. 08. 07. 계명 온누리 사물국악단 일본 오사카지역 공연
- 2007. 10. 31. 전국아동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
- 2007. 11. 29. 법인 명칭 변경(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 2008. 08. 01. 계명 온누리 사물 국악단 제주도 공연
- 2008. 12. 06. 2008아트드림 페스티벌(전국) 한국무용 부채춤 “아트상” 수상





CONTENTS

02 옛 추억이 있는 세상

얼굴 -故양계석 원장님의 글

故양계석 원장님 영전에 삼가 올리나이다 - 안승억

04 격려가 있는 세상

격려사 - 한양수 양도면장

성공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06 가족이 있는 세상

우리집 가족소개 - 여자1반 (웃음의 집)

퇴소아동 현황 (영준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야기)

08 꿈이 가득한 세상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 이야기

동계 극기훈련의 이모저모

12 우리들 이야기 세상

우리집 행사소식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이야기

새얼굴 새가족 소개

16 나눔이 있는 세상

자원봉사 활동 소식

자원봉사 소개

18 손길이 있는 세상

후원금 및 후원물품 내역정리

후원안내



얼굴

얼굴은 그 사람의 간판과 같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교양과 살아 온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얼굴만 보면 대개 사람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나는 관상학자는 아니지만 관상을 믿는 편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당황하면 허둥거리는 난감한 마음이 곧바로 얼굴에 나타난다. 슬프거나 기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상대의 얼굴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명원 직원 채용이나 집안의 결혼 같은 중대사도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됨이를 많이 참작하여 왔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권의 책일 수 있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울 앞에 자주 선다.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이 자신을 보고 있다.
거울에 비치는 자기와 마음속에 있는 자기는 다르다.
하나는 마음이 있는 자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만 있는 자기이다.
살아 온 세월이 얼굴에 나타나는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것은 표정관리를 잘하라는 말이다. 인간관계는 얼굴의 대면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때로는 즐거운 상대도 있고 때로는 곱끄러운 상대도 있다. 마음으로 괴로워도 상대에게 친절해 보이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적 예의이다.
기본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은 표정관리에 서툴러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얼굴 표정 관리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일러주는 말일 것이다.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책을 많이 읽거나 내공이 튼실한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런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웃는 표정을 지어도 경박함이 쉽게 감지된다.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사람의 교양이나 인내심 마음씨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화장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꾸미듯, 아름다운 마음씨도 가꾸어 아름다운 인간미가 느껴지는 얼굴이 최고의 얼굴일 것이다.
(1962. 9. 1.)

故 양계석원장님은 계명원 모든 식구들의 얼굴에
늘 평안함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었던것 같습니다.
이 글은 故양계석 원장님의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운 양계석 원장님

(故 양계석 원장님 영전에 삼가 올리나이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살이 바쁘고 힘들었다는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냥 핑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심하였고, 배은망덕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던지 원장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 하였고, 젊은 영혼들의 삶의 본이 되고자 깨끗하려 하였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맡은 책임을 잘 하려고 애쓰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6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2불이었으니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여명 식구의 끼니를 혼자 책임지시고 동분서주 하시던 모습이 지금에야 어렴풋이 보이는 듯합니다.

원장님은 우리 식구들이 피할 바위시오, 난공불락의 성이셨습니다. 그러나 철부지 저희들은 예쁜 조약돌을 생각하였고, 돌 돌 거리는 시냇물을 더 좋아 하였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처구니 없고, 마음 상하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라고 때늦은 후회를 한답니다.

원장님! 하지만 키워주신 그 본인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회 요소요소에서 바르게, 깨끗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대견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 어린 세 딸아이를 데리고 인사갔을 때, 원장님의 무릎에 앉히시고 밥을 떠먹여주시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로, 대학교수로, 미국 공인회계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이 모두가 원장님의 은혜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인천중학교 교모를 쓰게 해주셨고, 국립 인천사범학교에서 이 나라의 작은 페스티벌로써의 꿈을 키우게 격려하셨으며, 또 욕심을 내어 진학을 고집하는 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사년 간의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 이 나라 청

소년 교육에 헌신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30여년의 교직생활을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한의 겨울 날씨에도 강당 모퉁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원장님의 모습은 어린 마음에 경건한 신앙의 바탕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그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없는 저희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하여 보았자 알아듣지 못할 긴 긴 말씀을, 우리 하나님과 나누셨을 것을 생각하니, 우리 주님 마지막 때의 겻새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한시를 참지 못하고 쿨쿨 잠에 빠졌던 일 말입니다. 그래도 그때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 하려고는 마음은 먹었으나, 철없는 저희들은 아예 함께 하려고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뿌려주신 신앙의 씨앗들은 옥토에 뿌려져 삼십배의 결실을 보고 계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신 분이 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간혹 동으로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서편에 있을 때 있었으나 지나고 나면 그 서편에 나는 물론 모두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감격을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장님!

“끼니를 걱정 한다”란 말을 요사이 젊은이들은 모르는 참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前 양천고등학교 교감
노량진 유치원장
안 승 익

안승익 선생님은 1952년부터 계명원에서 자랐으며 초창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인천중, 인천사범학교를 거친 후 경희대에서 4년간 삼일 장학금을 수령한 수재입니다.

격려사



강화군 양도면장

안녕하세요.

강화군 양도면장 한양수입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자랑스런 새싹들이 돌아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먼저 마니산을 마주하고, 진강산 푸르른 자연 속에서 ‘무엇이든 바르게, 깨끗이, 열심히’ 라는 원훈으로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계명원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계명원 아동 여러분!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힘쓰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 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뒷받침 되어 21세기의 주역들로 자라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계명원 아동들이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민족과 인류 사회 발전의 일꾼으로 튼실하게 자라나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명원 가족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09년 4월

성공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다.

한국노총이 계명원 가족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지 1년이 되었다.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계명원을 방문해서 어린 학생들과 짧지만 소중한 만남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계명원에 대한 후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계명원이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인연을 소중히 여겨 계명원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작으나마 정성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나쁜 조건을 탓하며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생각과 말,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머쥔다.

지금은 미국 프로 풋볼의 영웅이된 하인즈워드는 어렸을때 친구들로부터 혼혈아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한국인 이었기 때문에 그는 혼혈아였던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혼혈아들은 백인들의 놀림상대가 된다. 하인즈워드도 친구들의 놀림에 학교가는 것조차 싫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혼혈아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남보다 몇 배는 더 땀을 흘리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풋볼선수가 되었다. 만약에 하인즈워드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만 한채 방황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세계적인 풋볼선수가 될수 있었을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4위를 차지했다. 거기에는 박지성 선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그 결과 박지성 선수는 네덜란드의 축구팀인 PSV

에서 뛰게 되었고, PSV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지성 선수는 프리미어리그팀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 뛰게된다. 세계 최고의 팀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도 박지성은 뛰어난 활약으로 주전선수가 되어 지난 3월에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선수 중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여러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의 축구영웅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다. 보통 평발을 가진 사람들은 잘 뛰지를 못해 평발을 가진 사람이 축구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통사람이라면 감히 축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박지성 선수는 자신의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시작했고, 피나는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된 것이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보통사람들 보다 더 취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피나는 노력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계명원의 친구들도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처럼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나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계명원 친구들이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양성수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한국노총도 늘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헌기**

웃음의 집 이야기

웃음의 집은 계명원 가족 중 여자초등부 아이들 5명과 선생님 1명이 함께 모여 사는 집입니다.

동생들의 코디를 너무 예쁘게 해주는 큰 언니 손수진과 큰 언니 만큼 정겨운 강문선, 이전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작은 몸으로 큰 책임감을 매고 웃음꽃을 피우는 귀여운 유서원, 임수빈, 오명선 이 세 막둥이들과 늘 화목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집으로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엮어 갑니다...♡

웃음의 집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1. 이름
2. 별명
3. 장래희망과 그 이유
4. 나만의 매력 포인트
5. 좋아하는 연예인
6. 가보고 싶은 나라
7. 내 이름으로 살행시

- 웃음의 집 아이들의 엄마 (윤성진) -

- 1 **윤성진**...★
- 2 닭공룡(마스코트)
- 3 부화부순(부부가 화목함을 말함)으로 살기 부부가 화목해야 만사가 평안함으로...
- 4 오픈 마인드~ 저력체력(?)
- 5 조인성
- 6 도쿄타워가 있는 일본...
- 7 **윤:** 윤성진은 이 나라에 태어나
성: 성심성의껏 사람들을 모시고
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 1 **손수진** (13세)...★
- 2 불여시
- 3 가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 4 눈웃음(?)
- 5 구준표(이민호), F4(꽃남들...)
- 6 일본
- 7 **손:** 손수진입니다.
수: 수진이라고도 하지요...
진: 진짠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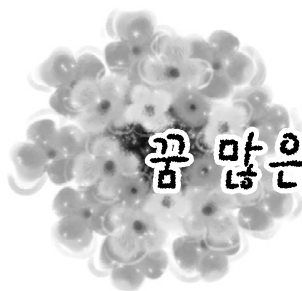


- 1 **강문선** (12세)...★
- 2 강아지(성이 강씨라~)
- 3 가수(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 4 비단결처럼 고운~ 착한 마음씨
- 5 당근 구준표!
- 6 캐나다
- 7 **강:**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 문제 없겠쥬?
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 1 **임수빈** (8세)...★
- 2 여우
- 3 가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서)
- 4 애교
- 5 소녀시대
- 6 일본
- 7 **임:** 임금님처럼 마음이 넓은
수: 수빈이는 착한 어린이
빈: 빈약한 친구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래요~ 롤루랄라

- 1 **유서원**...★
- 2 유서봉
- 3 요리사(요리가 좋아서)
- 4 CD얼굴
- 5 소녀시대
- 6 미국
- 7 **유:** 유치원처럼 행동하는
서: 서원이는
원: 원장님처럼 공부는 잘한다

- 1 **오명선**...★
- 2 오빨래~ 빨래
- 3 초등학교 선생님
(윤성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 4 오이얼굴
- 5 소녀시대
- 6 중국
- 7 **오:** 오빨래 빨래
명: 명품 별명이지요~ 그리고
선: 선생님이 되고싶은 나!



꿈 많은 21살... 영준이 이야기~!

계명원을 떠나 대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생활한 지 어느덧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명원에 있을 때는 사회라고 하면 막연하고 힘들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계명원에서 선 생님들께서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하시며 저희들의 현실감 없는 생활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 해서 해 주셨던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라 그런지 사회생활이 쉽지만은 않지만 또 그렇게 힘들고 암담하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계명원 원훈에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자’ 였었는 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100% 사회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이라는 본 게임을 준비하며 내 꿈 을 위해 달리는 마라토너 처럼 체력도 다지고 호흡도 고르며 언제든지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도 하나의 사회생활이지만 저에게 대학은 하나의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훈련! 그리고 더 밝은 나와 사회의 미래 !!

나의 집 계명원에 있는 사랑스러운 동생들에게 정말 근사한 형으로 선배로 기억되어 후배들이 나를 배우 고 따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진 형이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영준 학생은 2008년 2월 계 명원을 퇴소해서 춘천에 있는 한 립 성심대학 조리학과에 재학중 으로 지금까지 4.0이 넘는 우수 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 학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 재 KBS 6시 내고향에 요리관련 프로에 리포터로 활동 중입니다.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 이야기

(화려하고 멋진 공연이었던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의 생생한 현장속으로 쏙~욱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이제는 계명원! 하면 한국무용, 사물놀이가 떠오를 만큼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무용이 있기까지는 10년정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죠?! 2008년 12월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 본사 양재동사옥대강당서 있었던 아트드림페스티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공개 합니다~.

< 2008년 11월 1일 ~ 12월 5일까지 연습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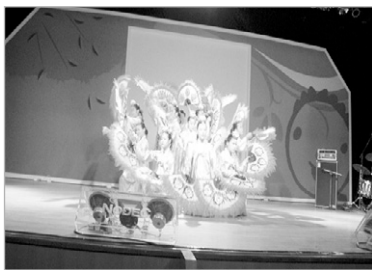


공연 한 달 전부터 그야말로 맹훈련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아이들이 야자를 끝내고 오는, 밤 9시 15분부터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더해가며 굵은 땀방울들을 매일같이 흘리기 시작했다. 워낙 무대경험이 많은 아이들이라 감정과 표정이 풍부한 대신,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베테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자세와 동작을 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은근히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으나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연습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법도 하였지만 서로가 마음으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노력은 점점 빛을 발하고 있었다.

< 2008년 12월 6일 >

드디어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은 조용히 우리를 맞이해 주는 듯 했으나, 이미 선의의 경쟁의식으로 장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도 어제의 여유로움보다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해 보였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아이들이 무대로 향하는 순간 '애들아. 연습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파이팅!!'을 외치며 5분 남짓한 아이들의 공연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평소보다 더욱 절도 있고 아름다웠던 춤사위로 객석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잊지 못할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을 회상하며...

사회복지사 박혜민



고운 자태와 우아한 춤사위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쏟아지게 만드는 계명원의 부채춤. 그 뒤엔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내시는 최공주 선생님의 열정이 배어있고, 무대 위에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태어나는 아동 13명의 노력이 숨어있다.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작년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2007년 아트드림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멋진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정작 수상의 영예를 이루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다시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좋은 장소에서 훌륭한 팀들과 경합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제껏 아이들이 보여준 노력과 끈기, 열정이 다른 어떤 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 한 달 전부터 그야말로 맹훈련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아이들이 야자를 끝내고 오는, 밤 9시 15분부터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더해가며 굵은 땀방울들을 매일같이 흘리기 시작했다. 워낙 무대경험이 많은 아이들이라 감정과 표정이 풍부한 대신,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베테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자세와 동작을 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은근히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으나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연습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법도 하였지만 서로가 마음으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노력은 점점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드디어 공연 하루 전인 12월 5일. 이날도 어김없이 2시간이 넘는 총연습을 끝마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아이들의 표정은 긴장감보다는 한 층 더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내일의 선전을 기원하듯 밝게 웃고 있었다. 드디어 아침은 밝았고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은 조용히 우리를 맞이해 주는 듯 했으나, 이미 선의의 경쟁의식으로 장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도 어제의 여유로움보다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해 보였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아이들이 무대로 향하는 순간 '얘들아, 연습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파이팅!!'을 외치며 5분 남짓한 아이들의 공연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평소보다 더욱 절도 있고 아름다웠던 춤사위로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의 무대가 무사히 끝나쳐졌음에 나는 가슴이 벅찼다. 수상여부를 떠나 이미 내 마음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 것처럼 기뻛고, 연습과 공연 모두 다 완벽함을 나타내 주었던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자리로 돌아온 아이들에게 너무나 잘했다는 격려와 칭찬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팀들의 공연을 지켜보았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수상 발표를 할 때쯤 잠시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매우 흥분되면서 진행자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다. 맨 처음 발표된 드림상이 다른 팀에게 주어지자 우리는 축하해 주면서도 내심 불안하였다. 그 긴장감 속에 영예의 아트상이 발표되었으며 당당히 계명원이 호명되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며 주변을 살펴보는 등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였지만 진행자가 큰 목소리로 다시금 계명원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 올라 서로를 감싸 안으며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영광의 트로피와 상금 500,000원이 주어진 가운데 그날의 주인공이 된 우리 아이들. 각기 다른 나이와 생김새, 성격을 가진 13명의 아이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키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합쳐 이루어내는 하나의 빛깔. 그것이 바로 부채춤의 빛깔이다.

서로 협동하고 단합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수줍고 평범했던 소녀들을 이토록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켜주신 최공주 선생님께, 늘 아이들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달려와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던 계명원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제10호 동계극기훈련 국토순례

2009년 1월 20일 ~ 23일

A조 : 최선옥, 안은준, 곽병철(변종례 외 12명)

B조 : 박선화, 최재준, 박혜민(이설희 외 12명)

C조 : 최현주, 윤석숙, 김정원(장 미 외 12명)



2009년 동계 수련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 3박4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3박4일간 크고 작은 산과 들을 적게는 25km에서 많게는 40km를 걷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A,B,C 세조로 나누어 단양팔경의 같은 코스를 출발점과 방향만 다르게 이동하는 그동안의 동계 수련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한 이번 동계 수련회는 힘도 들었지만 중간 중간에 다른 조의 식구들과 만나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특별했던 동계 수련회로 기억됩니다.

A,B,C 세조가 같은 코스를 걸었기 때문에 이번 소에는 B조가 걸었던 일정을 대표로 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계명원에서 3~4시간을 달려 목적지인 단양에 도착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우리 계명원 친구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동계 수련회 목적지까지 우리들을 데려다 주신 버스 기사님은 아주 오래전 계명원에서 원생으로 생활하셨던 우리들의 대선배님이어서 오고 가면서 오래전 계명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우리 계명원 친구들을 아들딸처럼 정겹게 대해 주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함께 점심을 먹고 첫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일정상 만나절을 걷는 비교적 짧은 코스여서 아이들의 발걸음도 힘차고 늦은 시간까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갔습니다.^^

둘째 날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은 오르막길로 35km를 걸어야 하는 힘든 날입니다. 단양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충주호의 풍경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 합니다. 하지만 잠깐 쉬면서 끓여먹는 따뜻한 커피와 간식은 늘 감동 그 자체였죠. 그리고 방곡 도예촌으로 향하는 도락산 정상까지의 행군은 그야말로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최악의 코스였습니다.

셋째 날

도락산을 오를 때 올라도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 그 덕분인지 비교적 내리막길이 많아서 거리로는 제일 많이 걸었지만 그래도 걸을 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체력과 근육의 경직 때문에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하루를 겨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 다리를 만져보고야 다리가 붙어있는 걸 알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비로소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자연이 몇 만년동안 만들어 놓은 고수동굴 앞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 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하나같이 무언가 이루었다는 뿌듯한 만족감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랄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집 행사소식

(2008년 12월 ~ 2009년 3월)

12월 6일 2008 아트드림 페스티벌



듣기만 해도 정겨운 우리가족! 계명인임이 자랑스럽고 빛을 낼 수 있었던 시간... 2008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 부채춤이 현대·기아자동차 재단에서 주최한 아트드림 페스티벌에서 아트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였다죠?!

12월 25일 성탄절 행사



「고요한밤 거룩한밤~」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짹짹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저희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동안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저희 잘했나요?

1월 6일 약물오남용 교육



마약퇴치운동본부 최동숙 선생님께서 우리 언니, 오빠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 약물오남용 교육을 해주셨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언니 오빠들 귀를 쫑긋! 세우며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진지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1월 8일 성교육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몸을 아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인천시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백양숙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성교육을 해주셨습니다.

1월 13일~28일 각반별 겨울방학나들이 프로그램 실시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각 반 프로그램시간입니다. 추위를 날리기 위해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 관람도 했는데요.

너무 너무 재미 있어서 이제는 방학만 손꼽아 기다려요...^^

1월 20일~1월 23일 중·고생 동계수련회



이번 동계수련회는 충청북도 단양으로 다녀왔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로 너무 좋은 날씨와 여건속에서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계기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히 다지는 시간이었고, 극기심을 키울수 있는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1월 25일 ~ 1월 27일 설 명절 프로그램



이번 설날에도 저희 가족들은 행복한 설날이 되었습니다. 율놀이, 영화보기, 소원적어 풍선날리기... 등등 다채로운 행사로 무척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세배하고 세뱃돈 받은 기억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인천광역시로 주관으로 김성수, 김유민 학생이 4박 6일동안 미국 하와이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돌아오고 싶지 않을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유민이는 평소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하와이에서도 거의 스타가 되었었다죠?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겠네요^^

2월 12일 ~13일 각 학교별 졸업식



빛나는 졸업장을 타는 우리 아이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죠? 졸업한 우리 가족 모두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 또한 축하해요~

2월 14일 Ash Gray(애쉬 그레이) 방문



클릭비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클릭비의 멤버였던 노민혁씨가 Ash Gray(애쉬 그레이)라는 그룹으로 새롭게 음반을 낸다고 하네요... 음반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다름이 아닌 노민혁씨가 우리집에 찾아와 주셨어요.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일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후원자가 되어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꼬~옥 지키시리라 믿어요^^

2월 18일 계명 새내기 출발식(퇴소식)



고3언니 오빠의 새내기 출발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기쁜일, 슬픈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새내기 출발식에는 재향군인여성회 이인현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언니 오빠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앞날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월 16일~20일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CAP) 참가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평소 우리의 언니·오빠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답니다. 그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주는 CAP프로그램이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6층 CAP실에서 있었는데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느끼고 배울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9일 문화나눔 국악, 영화 수업 시작



문화나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워~ 올해부터는 새롭게 국악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어린 동생들이 장구와 북을 두들이며 신명나는 가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눔 영화수업이 개편이 되어 더 정교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3월 17일 ~ 18일 직원야유회



우리 선생님들 직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주변으로 주문진, 정동진도 다녀왔다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야유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단합심은 한껏 높아지고, 설악산 주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랑과 화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31일 환경미화 대회



환경미화 대회로 인해 반짝 반짝 눈부실 정도로 집안을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서 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대요.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환경미화 심사때만 되면 심사위원들의 노고(?)가 절로 느껴지네요.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고생 많았어요~ 늘 그렇게 예쁜집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주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09.02.02.(월) ~ 02.07.(토) 4박 6일

희망을 불어 넣어 준 다른 공기

강화고등학교 3학년 김유민



미국여행은 세상이 불공평하지만은 않음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밝은 내일도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왔기에 축복이 주어졌던 것일까?

정말 난 행운의 사나이인 듯 싶었다. 평소엔 하와이라는 곳을 '가고 싶다' 라고 생각만 했지 그곳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해성보육원에 맡겨진 난 그곳에서 6년을 지내왔고 이곳 계명원에 와서 생활한지가 어느새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들 속에서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아무리 잘해주셔도 내가 보육원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꿈이 가로막고 어려움을 느끼게 할 때가 있곤 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의 공기를 마심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조금은 사라지고 꼭 성공해보겠다는 자신감과 열의를 가지게 하였다. 큰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좀 더 큰 이상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내 자신을 외쳐보겠다는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신 인천광역시장님과 우리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모두들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그 설렘은 건조하고 조금은 답답한 비행기 안의 시간들이 길지만 길지 않게 느껴졌다.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본 것은 야자수 나무였는데 정말 신기했다. 그때서야 하와이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들뜬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우와!"라고 함

성을 지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하와이에 와서 많은 관광지와 여러 문화를 체험했는데 참 멋있고 재미있었다. 하와이에 있는 동안 와이키키 해변, 호놀룰루 시청, 오바마출신학교, 하나우마베이 등 기억에 많이 남을 만한 관광지를 두루 다닐 수 있어 감사했다.

다녀온 여러곳 중에 오바마 대통령 출신학교인 '푸나호우 하이스쿨' 이 기억에 남는다. 주일예배 때 부원장님께서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알게 되어 삶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알려주신 것이 떠올랐다. 미국이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큰 관심을 끌 만큼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의 모교를 다녀왔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었다.

미국이라는 세계, 하아와이에 간 것도 영광인데 행운의 사나이가 된 난 한류스타까지 되어버렸다. 내가 하와이 TV에 나왔다는 말이다. 집에 돌아와 자랑을 해도 모두들 즐겁게 해주려고 농담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14명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TV에 나온것을 보고 다들 놀라워했고 축하해 주었다. 내가 보아도 TV에 나온 나의 모습이 참 멋져보였고 인터넷 검색에 "하와이 김유민"만 쳐도 내 기사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큰 영광이 되었다.

하와이에서의 4박 6일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아쉽지만 알차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더 즐겁고 기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빌딩, 좋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행운의 사나이가 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모두들 내일을 향한 꿈을 이루어가도록 희망을 불어넣어 준 또 다른 공기가 헛되지 않게 열심히 파이팅하기를 바래본다. 우리들이 해외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 얼굴 새 가족 소개

아동

★★ 이종화(남초 4)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래 곤충 박사가 되고 싶다는 꿈 많은 소년이랍니다. 하얀 얼굴에 채치있는 입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백배, 기쁨백배가 되고 있는 우리의 종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답니다. 종화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해 줄까요?

★★ 김진미(여중 3)

중 3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큰 키에 수줍은 미소까지 아름다운 그녀 김! 진! 미! 조용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 모두 진미의 팬(?)이 되고 말았답니다. 동생 현우에게는 다정 다감한 누나이자 우리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는 진미가 계명원 가족이 되어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자~ 진미야^^

★★ 김현우(남중 2)

수줍음이 많은 현우는 학교-집-학교-집(?) 밖에 모르는 모범소년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해서 선생님들께 점수를 좀 많이 받았던데... 앞으로는 지금의 예쁜 모습 변치 않길 바래~

선생님

★★ 강미향 선생님

큰 키에 시원 시원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녀! 강·미·향 선생님. 오늘 하루도 왁자지껄 사춘기 소녀들의 엄마역할을 하기 위해 이리 저리 분주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도 중학교 언니들의 엄마가 되어 요즘 너~무 행복하시다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풀어주시는 강미향 선생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이곳 계명원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 길태호(남초 1)

동그랗고 커다란 눈망울에 잘~ 생긴 태호가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부시간에는 간식이 보여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죠? 다말 냄새만 맡을뿐...^^ 집중력이 뛰어나고, 요즘에는 한자·한글공부랑 친구가 되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태호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쳐주어~^^ 짹짹~

★★ 길태민(남 유치부)

"자~ 자 숙보입니다." 계명원 인기 순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혜성같이 나타나 우리집 형, 누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 태민이의 눈웃음에 우리 가족 모두가 쓰러지고 맙니다. 서로 태민이와 살고 싶다고 선전포고가 되었으니 우리 태민이는 행복하고민중입니다. 긴 속눈썹에 이썬리도 물고 갇다는(?) 태민이의 눈웃음에 요즘 우리가족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 신길례 선생님

요즘 우리집이 너무 깨끗해서 반짝 반짝 빛이 난다죠?! 그 뒤에는 우리와 새로운 한가족이 되신 신길례 위생원 선생님의 노력의 땀방울이랍니다. 요즘 우리집이 너~무 깨끗해져서 우리아이들 쓰레기 하나 버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네요. 오랫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활동소식

* 한국노총 방문 - 12월 5일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백현기 사무총장과 임직원의 후원으로 각 숙사별 오디오를 선물 받았습니다. 직접 오디오도 설치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그 소중한 손길 감사드립니다.



* 열린찬양단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

2월, 4월, 6월... 그리고 쭉~욱?? 열린 찬양단의 단장님이신 백현기사무총장과 소녀같이 어여쁜 민선희 사모님, 강민석 리더님과 함께 하는 열린 찬양예배... 열린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찬양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예배후에 이어지는 생일잔치에는 기쁨이 두배, 행복이 두배가 되어 저희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십니다.



* 일산병원 신입직원 교육 및 자원봉사 - 12월 10일

일산병원 선생님들의 방문으로 우리집이 좀 더 깨끗해 졌다요? 일산병원 신입직원교육의 차원으로 두 번째로 방문해 주셨답니다. 원내 주변 구석 구석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손을 꼬~옥 잡고 목욕도 하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는데 이번 기회로 궁금증도 해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을 또 기약해 볼게요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자원봉사 - 12월 20일

요즘시대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대세! 인천의 평생학습을 책임져 주시는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러 산타가 되어 오셨답니다. 마술쇼와 클래식 연주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의 증명사진까지 찍어주셨어요. 실력들이 대~단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아시고 꼬~옥 필요한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 김태겸 산타클로스와 함께 하는 여행 - 12월 21일

올해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시간이 어느덧 12년이 되었다요!! 올해에도 변함없 김태겸 산타클로스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여행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 강화한전과 함께하는 송년행사 - 12월 29일

우리지역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화지점에서 우리 가족의 송년행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에 웃음 치료의 시간까지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전가족 여러분~ 이제 저희 계명원 가족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 주세요.



* 강화 해수랜드 초청행사 - 1월 7일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가족들의 목욕을 책임져 주시는 강화해수랜드에서 이번에는 저희 가족 모두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찜질방도 이용하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 주셔서 저희가족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가족들의 자원봉사활동 소식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중창단 아이들이 호세 요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기쁨을 드리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큰 절도 올리고 왔습니다. 다음에도 꼬~옥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라 굳게 마음을 먹으며 효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소개

● 새롭게 시작된 지역사회 후원 ●

● 갑룡초등학교 어머니회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2주에 한번씩 오셔서 저희 도서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이 점점 깨끗해지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가는 듯 하죠? 감사합니다.

● 열린 찬양단

두달에 한번씩 저희원에 방문하셔서 뜨거운 찬양 예배와 원내 생일잔치를 함께 해줍니다. 함께 하는 시간들이 금새~ 지나가는 듯.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 학습지도 자원봉사 (김미숙, 박준엽 선생님)

자람터라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신 경력이 많으신 김미숙, 박준엽 선생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중학교 2,3학년 언니, 오빠들의 영어·수학 지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벌써 실력들이 쑥~ 쑥~ 향상되어 전교 1등을 다 툰다는 소문이...^^;

● 학습지도 ●

기차길 옆 공부방

한태수(중 1학년 영어학습지도)

김미숙, 박준엽(중 2,3학년 영어, 수학학습지도)

● 노력봉사 ●

나누기

일심회

강화해수랜드(초지대교 옆 위치)

강화정신요양원

도서관 관리(방경이, 홍성숙)(갑룡초교 어머니회)

예원 미용봉사(윤경숙, 이재임), 이현정

뉴시스

(주) 새한기업

(주) 제니스

(주) 한국아쿠르트

(주) 엠코코리아

(주) 연우

(주) 푸르덴셜

북한선교센터

노란 우체통

열린 찬양단

주안장로교회 영어예배팀

학교중소리(삼산초등학교 어머니회)

● 전문지도 ●

한국무용 (최공주)

사물놀이 (박인희)

기타지도 (한태수)

드럼지도 (김광희)

후원 활동 소식

일반 후원

2008년 12월 ~ 2009년 3월

김진수 80,000	유미선 80,000	인력공단 47,000	김찬섭 40,000	유석형 50,000	장다솜 20,000
최대관 40,000	계혜숙 360,000	김항록 20,000	윤경숙 40,000	장후순 40,000	황선완 20,000
고영희 60,000	김혜경 100,000	윤기옥 100,000	전서영 40,000	곽남기 270,000	남상분 30,000
이경민 40,000	정길오 40,000	노미화 40,000	이경순 40,000	정정례 40,000	김녕희 120,000
노현주 200,000	이근우 40,000	정하영 100,000	한정림 30,000	김덕연 30,000	이동배 330,000
정현희 200,000	홍근미 20,000	김민제 120,000	마인일 200,000	이동용 80,000	정홍식 90,000
홍성숙 30,000	김선기 800,000	박영란 80,000	이상민 40,000	황인재 60,000	김선학 15,000
박윤미 40,000	이성일 59,760	최경희 50,000	김성현 20,000	박장규 39,040	이은희 30,000
최공주 150,000	김태겸 2,000,000	김영림 30,000	박향화 100,000	이재임 40,000	최난규 1,000,000
길광웅 200,000	김영철 120,000	방경이 40,000	이정임 50,000	최선희 60,000	노영호 50,000
김예경 90,000	방현규 80,000	이태상 200,000	최주영 120,000	류창애 120,000	김완기 300,000
배명수 40,000	김유정 10,000	백정현 80,000	김은정 10,000	변성관 40,000	김정길 30,000
옥영안 40,000	김지연 30,000	원종례 200,000	고척교회 100,000	약사사 400,000	학익전자 270,000
강화아람단 600,000	인천지방경찰청 300,000	건강백세약국 200,000	국민은행인천영업소 1,000,000		
동광중학교 200,000	인력공단경인본부 13,000	연우(주) 2,000,000	주안교회영어예배부 400,000		
회계법인이촌 600,000	인천시의회 300,000	제니스건설 3,000,000	제니스티엔에스 3,000,000		
인천번호사회 1,000,000	인천공동모금회 1,500,000	한국아동복지협회 3,215,000			
국민은행(김포서지점) 500,000	인천시평생학습관 578,000	재향군인여성회 1,000,000			

휴대폰/일반전화 후원

2008년 12월 ~ 2009년 3월

장윤운 20,000	이미희 12,000	전병섭 12,000	봉경해 12,000	이주일 20,000	심구섭 12,000
김인숙 12,000	장효택 20,000	이후덕 12,000	김준용 20,000	정경봉 40,000	이봉재 20,000
조수환 20,000	이해순 12,000	이정재 12,000	박정남 12,000	황경수 9,000	박수연 30,000
박혜진 15,000	김은희 9,000	김차영 9,000	정상준 9,000	한성택 15,000	하준엽 9,000
이훈재 9,000	장영제 15,000	구임희 9,000	유석진 9,000	인경삼 15,000	유상옥 9,000
김점복 9,000	임성인 9,000	권오희 15,000	문정희 15,000	한혜자 9,000	김효숙 15,000
이재원 15,000	신광호 9,000	정재근 9,000	안홍수 30,000	박상규 9,000	김주현 9,000
이후덕 9,000	안은준 15,000	최현주 9,000	윤석숙 15,000	김태희 9,000	김판진 9,000
조영현 9,000	김용원 9,000	박경임 9,000	문용진 15,000	이수영 30,000	신현명 15,000
곽병철 15,000	박상준 9,000	홍성복 15,000	민문경 9,000	유일숙 5,000	정수환 10,000
조정심 6,000	김시중 10,000	정문희 15,000	이지숙 5,000	차현숙 3,000	황선완 10,000
백승경 3,000	장동수 6,000	박혜경 12,000	이예선 3,000	박홍규 15,000	오정화 15,000
정대중 30,000	최정애 9,000	이상우 9,000	김정기 15,000	김정희 9,000	유관순 9,000
김혜정 9,000	정윤희 30,000	최정화 9,000	이제광 9,000	이용채 9,000	정연순 9,000
최순영 9,000	김옥분 9,000	박성진 9,000	윤석주 30,000	양소영 15,000	조사무엘 15,000
신동민 3,000	이형호 30,000	안한모 9,000	김용일 9,000	고영철 9,000	심진수 9,000
박지영 9,000	김삼일 9,000	이철희 9,000	김주일 15,000	심우천 9,000	윤상범 9,000
오종현 10,000	허란희 12,000	최선옥 9,000	김영일 9,000	안상윤 9,000	홍영기 9,000
김광용 9,000	정미경 15,000	이선주 9,000	김정원 9,000	유승희 15,000	김경수 15,000
박종선 9,000	조자현 10,000	박우선 20,000			

후원 물품 명단

2008년 12월 ~ 2009년 3월

12월 : 화도초등학교(휴지270개, 풍풍4.2키로4개, 피죤12개, 바디로손10개, 치약120개,삼푸15개, 세수비누40개, 굴2박스) 한국노총(미니컴퍼먼트15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배드민턴체6개, 공20개, 프리테니스1박스) 일산병원(과자 1박스,사과15키로 2박스, 굴 5키로 11박스)송민혁후원자님(굴 3박스, 배2박스, 바나나2박스, 사과 2박스) 고척교회영등포공업고(양말164족) 영어예배부(치솔 5개, 양말7족, 연필12자루, 재활의류 6박스, 장난감1박스, 신발 1박스, 치약 1개) 큰엄마YWCA(과자 10봉,) 찬우물교회(빵 4상자) 장미후원자님(음료4상자, 과자 10상자) 한자선생님(굴15키로 2상자) 한해숙농협하노로빵집(모자,실내화2상자) 다하늘춘뉴시스(사골,꼬리뼈8박스) 화천군뉴시스(토마토비타150개)양주군뉴시스(시래기300g 20개)강원병무청뉴시스(버터크림빵178개) 평생교육(다리미 4개, 스키장갑 42켤레, 삼푸9개, 물감 16개, 치약28개,) (주)두레샘넥스스케어(전자계산기3개, 시계 18개, USB2개, 가방11개, 여행용가방1개, 테니스채1개, 우산2개, 볼펜1자루, 연필꽃이4개, 열쇠고리1개) 강화군부군수님(배7박스,사과7박스) 양지회군수사모님(감굴10kg6박스)오골계마을(계란 10판) 인천시의회(휴지 48개, 감굴3박스) 눈높이학습지(카세트 7개)강화읍강영순(떡5박스) 후드뱅크(과자 5박스, 소금 5자루,모자 100개) 송용식장로님(떡케익1시루 강화속노랑고구마 4박스) 연우(초코파이 6박스, 쌀10kg5포, 과자 2박스) 해수탕(치약 124개) 이운규사무관(굴10kg 2박스) 노영호장로님(과자 1박스) 한.전(로손 90개, 립스틱90개)금호석유화학(사과 22박스, 배 13박스) 왕민애(정수기1대) 제니스건설,새한기업(4인용식탁 25세트,식탁의자100개)

1월 : 한국출판협동조합(도서9권) 새롬식품(고구마스넵4상자) 청불회(굴 2상자, 과자2상자, 재활의류5상자, 운동화7켤레, 롤러스케이트 1켤레) 강화군청(사과5박스, 배4박스, 굴5박스, 쌀 6포) 인천시교육청교육감(쌀 8포) 금호석유화학(과일 35박스) 김순자(굴10박스) 인천부평교회(굴 2박스) 한자속독선생님(T셔츠90장) 마을주민이상호(배7.5kg6박스,배15kg 4박스) 보건복지부오양섭(굴10kg3박스, 떡국40kg, 쇠고기 3근) 찬우물교회 (연필100자루, 노트100권, 참치 24개, 굴 1상자) 해수탕 (배 7.5kg2상자) 한국노총(떡국20kg10포) 장미후원자님 (초코파이1박스, 땅콩강정스넵 1박스, 새우깡 1박스, 오징1박스, 양파링1박스, 크라운산도1박스, 오렌지드링크2박스, 초코하임1박스, 마가렛트1박스, 계란과자 1박스, 오징어땅콩 1상자)

2월 : 푸드뱅크(콩나물7자루, 배추된장국15박스) 창암장학문학재단(도서62권) 여성단체협의회(아이스크림144개) 글로리아(가방15개, 모자13개, 우비4개, 머리핀2박스, 연습장32권, 양말25켤레, 크레파스5각, 그림물감1세트, 털실내화16켤레) 강영순(떡5상자) 푸드뱅크(양배추7망) 영어예배부(치약10개, 비누4개, 모자2개, 핸드로손 1개)

3월 : 보건소(락스 10통) 눈높이(문구세트84세트) 인천아동협회(고등학교교재66세트) 김정우(삼푸30개) 김경(어린이책이야기 1권) 무교회최선희(재활의류1박스) 예원(재활의류1박스) 강화주민(떡5박스) 푸드뱅크(1회용배추된장국10박스, 콩나물1박스)



저희계명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후원자로 함께해 주세요.

- 매월 일정 금액을 지로나 은행 온라인, 또는 휴대폰전화 소액결재를 통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농협 : 243063-51-03129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계명보육원

* 자원봉사로 함께해 주세요.

- 우리집에 방문하셔서 아동들의 학습, 예능지도나 노력봉사, 미용, 의료등의 전문기능 봉사로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인증기관]

* 결연으로 함께해 주세요.

- 디딤씨앗 계좌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 (최대 3만원까지)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 발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입니다. 결연으로 함께 해 주세요.

계명 청소년 수련원 안내

● 주요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연수시설(대강당, 중강당, 다목적실)
문화시설(노래방, 휴게실등), 부대시설(매점, 식당 등)
야외시설(수영장, 등산로), 체육시설(운동장, 잔디구장, 농구장)

● 프로그램

- 창작모듬놀이활동 -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다짐의 시간, 캠프올림픽, 싱어롱, 레크댄스
- 레저스포츠체육 - 산행, 수영, 족구, 댄스, 써바이벌
- 포스트활동 -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대형윷놀이, 굴렁쇠굴리기, 미니양궁, 미니골프
- 특강 - 리더쉽 트레이닝, 회의진행법, 지도자의길
- 역사체험활동 - 강화역사관, 광성보, 고인돌, 갑곶돈대 등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계명수련원 TEL : 032) 937-8470 ~ 1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우 / 417-853

교통편

- 자가용**
- 초지대교 → 강화방면 → 온수리 → 조산초등학교 뒤편
 - 초지대교 → 온수리 → 양도 → 조산초등학교 뒤편
- 버 스**
- 강화터미널 하차 → 양도 방면 버스 승차 → 조산초등학교 앞 하차
 - 강화터미널 하차 → 마니산 방면 승차 → 탑재삼거리 하차 도보5분거리
 - 인천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앞 버스정류장 700번 버스 이용 → 온수리 하차

우리들의 뒤편 항상 누군가 계셨습니다.

메마른 세상의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며 손짓하는

미소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따스한 관심들과 깊은 정성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신 사랑으로 빚어진

우리들의 커다란 꿈들을...



발행인 양성수
편집인 문정희, 최재준
발행처 계명원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홈페이지 <http://www.ekmw.or.kr>
전 화 032.937.1755
팩 스 032.937.1988
디자인 인 세종인쇄 032.887.9293